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에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황영희¹ · 박선정²

¹울산대학교, 조교수 · ²수원여자대학교, 조교수

The Effects of Vocational Ethics on Nursing Recogni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Young Hui, Hwang¹ · Sun Jung, Park²

¹*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4권 제3호 2020년 9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4, No. 3, Sept. 2020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에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황영희¹ · 박선정²

¹울산대학교, 조교수 · ²수원여자대학교, 조교수

The Effects of Vocational Ethics on Nursing Recogni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Young Hui, Hwang¹ · Sun Jung, Park²

¹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vocational ethics on nursing recogni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Methods** : The participants were 179 nursing students in three nursing college,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measuring vocational ethics, nursing recogni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from October 1 to October 30,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WIN 23.0. **Results** : There was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vocational ethics and nursing recognition ($r = .26, p < .001$), clinical practice stress ($r = .20, p = .007$),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 = -.28, p < .001$). The factors influencing vocational ethics were grade ($B = 0.29, p = .019$), nursing recognition ($B = 0.34, p = .001$),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 = -0.34, p < .001$). The explanatory power for these variables was 14.9%.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nursing recognition and strengthen vocational ethics education in the curriculum to enhance vocational ethic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Vocational Ethics, Nursing Recogni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윤리는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지향하는 특징 중 하나로 인간은 윤리적 행위를 추구한다[1]. 특히, 직업윤리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보편적 직업윤리와 각 직업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특수한 직업윤리로 구분된다[2]. 생명과학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상황에서 간호사는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타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3].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어느 직업보다도 고도의 직업윤리가 강조되어 왔고 [3], 간호사가 올바른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는 윤리적인 태도 속에서 환자의 치유와 총체적인 안녕(well-being)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1], 간호사가 올바른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 진로를 결정한 간호대학생부터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와 환자안전 역량간의 관계[2], NCS 기반 직업윤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4]이며, 직업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간호직 인식이 있다. 간호직 인식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지각, 신념, 태도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이상적인 간호직 인식과 임상에서 인식하는 간호직 인식과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혼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간호직 인식 즉 간호사에 대한 인식의 혼돈이 오는 경우 간호사로서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Park 등[7]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간호직

인식과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간호직 인식이 직업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간호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실습업무 부담, 대인관계 갈등 그리고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7].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처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9],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직업윤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직업윤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직업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직업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직업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도에 위치한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4학년 학생 179명이다. G Power 3.1 프로그램[10]을 이용하여 대상자 수를 선정하였고,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의 수가 3개일 때 최소 표본수는 119명이므로 분석조건을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직 인식

간호직 인식은 Yang[11]의 도구를 토대로 Moon [1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전문직 이미지 그리고 간호직 전망을 포함한 총 33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Moon [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2)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i, Moon과 Lee[13]의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등 [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3) 임상실습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스트레스는 Whang[14]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58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Whang[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4) 직업윤리 측정도구

An과 Lee [15]의 연구에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K도에 위치한 3개 간호학과와 학과장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 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총 183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83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기록한 4부를 제외하고 총 179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연구 시작 전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필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 익명성 보장,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료 수집 중이라도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를 허락한 경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 직업윤리는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 직업윤리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직업윤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윤리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여성이 161명(8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학생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103명(57.5%), 만족이 53명(29.6%)으로 대부분이 대학생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90명(50.3%), 보통이 79명(44.1%)으로 과반수 이상이 전공에 만족하고 있었다. 학점은 3.5에서 3.9가 82명(45.8%), 3.0~3.5가 62명(34.6%), 3.0 미만인 26명(14.5%), 4.0~4.5가 9명(5%)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윤리의 차이에서 성적에 따라 직업윤리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4.42, $p=.005$). 사후 분석한 결과, 성적이 4.0~4.5인 학생과 성적이 3.0~3.5인 학생이 3.0 미만인 학생보다 직업윤리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성별, 전공만족도, 대학생생활 만족도에 따라 직업윤리의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윤리의 정도

본 연구에서 간호직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84 ± 0.44 점, 직업윤리는 5점 만점에 3.72 ± 0.62 점,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5 ± 0.46 점,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35 ± 0.46 점이었다(Table 2).

3.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윤리의 상관관계

직업윤리는 간호직 인식($r=.26$, $p<.001$), 임상실습

Table 1. Differences in the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79)

Variables	n (%)	Nursing Recogni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Vocational Ethic	
		M±SD	t or F(<i>p</i>)	M±SD	t or F(<i>p</i>)	M±SD	t or F(<i>p</i>)	M±SD	t or F(<i>p</i>)
Gender									
Male	18(10.1)	3.98±0.40	-1.39(.166)	3.80±0.62	-3.31(.004)	2.58±0.73	4.53(<.001)	3.49±0.83	1.66(.098)
Female	161(89.9)	3.83±0.45		3.30±0.42		3.23±0.58		3.74±0.59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 ^a	90(50.3)	3.81±0.45	0.55(.580)	3.46±0.47	5.14(.007)	2.99±0.68	7.24(.001)	3.62±0.64	2.56(.081)
Moderate ^b	79(44.1)	3.88±0.43		3.24±0.45	a > b	3.34±0.54	a < b	3.80±0.60	
Unsatisfied ^c	10(5.6)	3.81±0.47		3.23±0.26		3.30±0.40		3.95±0.62	
Satisfaction in academic life									
Satisfied ^a	53(29.6)	3.84±0.47	0.05(.951)	3.46±0.44	1.99(.140)	2.95±0.66	4.99(.008)	3.70±0.59	0.21(.809)
Moderate ^b	103(57.5)	3.84±0.42		3.31±0.48		3.23±0.62	a < b,c	3.74±0.61	
Unsatisfied ^c	23(12.8)	3.87±0.44		3.29±0.42		3.35±0.50		3.66±0.75	
Grade									
4.0~4.5 ^a	9(5.0)	4.02±0.36	0.58(.632)	2.96±0.25	3.70(.013)	3.19±0.71	1.88(.135)	4.09±0.53	4.42(.005)
3.5~3.9 ^b	82(45.8)	3.85±0.41		3.41±0.45	a < d	3.23±0.65		3.67±0.56	a,c > d
3.0~3.5 ^c	62(34.6)	3.82±0.48		3.28±0.45		3.17±0.59		3.85±0.62	
<3.0 ^d	26(14.5)	3.81±0.47		3.47±0.50		2.90±0.60		3.42±0.75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Level of Nursing Recognition, Vocational ethic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Variables	Min-Max	Mean±SD
Nursing Recognition	2,79-5,00	3,84±0,4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26-4,84	3,35±0,46
Clinical Practice Stress	2,26-4,84	3,35±0,46
Vocational ethics	1,00-5,00	3,72±0,62

SD=Standard Deviation

스트레스($r=.20, p=.007$)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상실습만족도($r=-.28, p<.001$)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9, p=.012$),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직 인식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간호직 인식과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4. 직업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종속변수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2.00으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VIF(분산팽창인자)는 1.00~1.01으로 10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을수록($B=-.34, p<.001$), 간호직 인식이 높을수록($B=.34, p=.001$), 성적은 3.0 미만인 경우에 비해 3.0 이상인 경우가($B=.29, p=.019$) 직업윤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임상실습만족도($B=-.34$)와 간호직 인식($B=.34$), 성적($B=.29$)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 = 179)

	Nursing Recognition $r(p)$	Clinical Practice Stress $r(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p)$	Vocational ethics $r(p)$
Nursing Recognition	—			
Clinical Practice Stress	.11(.130)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5(.536)	-.19(.012)	—	
Vocational ethics	.26(<.001)	.20(.007)	-.28(<.001)	—

Table 4. Variable Influencing on Vocational ethics

	B	SE	β	t (p)	Variance Inflation Factor
Constant	3,32	0,52		6,43 (< ,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34	0,09	-0,25	-3,62 (< ,001)	1,00
Nursing recognition	0,34	0,10	0,24	3,44 (,001)	1,01
Grade	<3,0				
	≥3,0	0,29	0,12	0,16	2,36 (,019)
R ² (%)				16,4	
Adjusted R ² (%)				14,9	
F (p)				11,40 (< ,001)	
Durbin-Watson				2,00	

14.9%이었고,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40$, $p<.001$)(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에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의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 3.72점으로 중보다 약간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를 측정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윤리 점수를 다른 연구의 간호대학생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를 측정한 Kim과 Lee [2]의 연구의 직업윤리점수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 직업윤리는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4.0~4.5인 학생과 3.0~3.5인 학생의 직업윤리의 평균점수가 성적이 3.0미만인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적이 우수하면 직업윤리가 높을 것이라 가정을 할 수 있으나 일반화는 어렵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학과 교육과정 중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면서 직업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인식이 높을수록 직업윤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 인식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16], 직업윤리와 같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부분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실무능력을 키우고 직업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지만[17], 임상실습현장에서 무시, 무관심, 멸시[18], 환자의 권리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는 환자의 임종 환경에 처했을 때의 도덕적 고뇌[19] 등을 경험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강한 직업윤리를 지

닌 조직 구성원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싫증이 나거나 피로해도 최선을 다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20], 높은 직업윤리를 가진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더 높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는 직업윤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으므로[20,21],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직업윤리 간의 관계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았다. 직업윤리가 높은 대상자의 경우 임상실습에서의 혼란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18,19], 임상실습만족도가 낮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높아졌을 수 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임상실습 상황에서 겪는 힘겨움을 이겨내고, 간호사로서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면[22], 오히려 이것이 직업윤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임상실습 상황에서 겪는 혼란과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직 인식 그리고 성적이었으며, 그 영향력은 14.9%이었다. Cohen[23]은 심리지표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13% 이상이면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모형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이므로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을수록 간호사로서의 직업윤리가 더 확고해진다는 역설적인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실습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임상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24], 임상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간호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에 따라 학생들과 함께 문제상황이 발

생한 원인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상황에서 간호사로서의 올바른 직업윤리를 확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호직 인식인 높은 학생은 높은 직업윤리를 가지므로 간호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간호직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간호사 인식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이 있으므로[5] 간호사 근무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간호협회와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적이 높은 학생이 높은 직업윤리를 가지므로 간호교육과정 속에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저학년 때부터 강화하여 운영한다면 직업윤리가 자연스럽게 확립되어[25], 임상실습시 윤리적 딜레마 상황속에서도[19]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직 인식 개선과 교육과정에서의 직업윤리 교육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겪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직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비교과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에 간호직 인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윤리가 높을수록 간호직 인식과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직업윤리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았다. 직업윤리가 높은 대상자의 경우 임상실습에서의 혼란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낮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높아졌을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직 인식 그리고 성적이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14.9%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직업윤리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직 인식 개선과 교육과정에서의 직업윤리 교육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겪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hoi WS. Understanding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duty ethics and virtue ethics for medical practitioner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20;23(1):39-56.
2. Kim JM, Lee SH.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and patient safety cap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ving and Environment*. 2018;25:694-701.
3. Oh SE. Ethical issues in nursing profession. *Nursing & Health Issues*. 1997;2(1):105-118.
4. Kang MS. A study on NCS-based vocational ethics program using dilemma theory: focused on preliminary nurs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16(2):399-424.
5. Kim SY, Park SH, Kim DW. Images of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nurse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9;17(4):167-176.
6. Lee ES, Park MS. Nursing college student's image as a nurs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onvergence relationship with nursing profession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1):311-320. <https://doi.org/10.14400/JDC.2017.15.1.311>
7. Park BJ, Park SJ, Cho HN. The link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 of nurs-

- 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7):220-227.
8. Kwon KN, Choi EH.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10;24(1):19-28.
9. Jeon SY, Lee YJ. The effect of sensitivity intelligence, self-elasticity, and clinical practical stress on career conges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9):767-783.
10.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175-191. <https://doi.org/10.3758/BF03193146>
11. Yang IS.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urse im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98;4:289-306.
12. Moon YJ.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ing and male nurses and the consideration of nursing care in choosing career: male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master thesis]. Jin-ju: Gyeongsang University; 2010. p.1-80.
13. Choi MY, Moon TY, Lee HJ. (2013).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ntention of recommendation among paramedic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3):1301-1312.
14. Whang SJ.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ool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the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2002;14(1): 35-54.
15. Ahn KY, Lee YK. The effects of job ethic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Vocational Education*. 2008;27(4):107-127.
16. Seo YS, Jeong CY.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e image and self-esteem on career conges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linical Health Research*. 2020;8(1):1377-1385.
17. Yu HS.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17(2): 1129-1144.
18. Yang HM, Lee YJ, Lee KJ. The rudenes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the impact of clinical practice stress on their sense of career stagn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2):637-648.
19. Park SH. Moral distress nursing students could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at psychiatric ward.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9;10(6):191-205.
20. Kim KS. The effects of sports activities on police officers' job stress, job burnout, and job ethic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Kyonggi University; 2015. p.1-134.
21. Kim SS, Lee JS, Kim EJ, Lee WH, Chung ES, Cheon SJ. Influence of mountain bike commissaire' stress upon professional ethics and self-esteem. *The Korea Journal of Sport* 2012;10(2):13-21.
22. Lee JL, Park SJ.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11):66-75.
23.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1988. p.407-466.
24. Lee MR, Kim MJ.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 19(6):197-208.
25. Bang SY. The effects of ethics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 21(1):568-576.